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시·공간**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건축
문화시·공간'을 클릭하시면 종이 매체에서 원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06

031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건축사자격등록제도의 시너지 효과

이창을 건축사 /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_ 2부



사인정



필암서원 강당

인터뷰_ 螢窓雪案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

시론 02

건축사자격등록제도의 시너지 효과 _ 이창을
턴키방식 사업 중단되야 _ 김기홍

설계경기 03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특집기획 04-05

건축사등록원 제도 시행,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_10부 코럴스프링스, 키티메르_도영준

사람 & issue 07

건축은 우리의 '삶', '행동' 등을 담은 '큰 그림'이다 _ 정종민

지역건축문화 08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2부 _ 김지민

螢窓雪案 09

국내 건축구조분야(내부구조)의 권위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 Academy' 개강



정중엽 前 문화관광부 장관



류준수 건축사

- 6. 14 오후 7시, 임종엽 교수 강연
- 6. 28 오후 7시, 황용현 회계사 강연

건축사자격등록제도의 시너지 효과



이창열 건축사
(주최) 2014 건축사사무소 대표

모든 건축사가 협회의 등록원에 등록해야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때에 우리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그 대가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디자인 개발한 작품은 위험하다. Revit과 BIM의 툴로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그룹화하여 여러 건축사가 함께 창작 활동할 때에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자격취득자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UIA기준의 교육이수 후 2012. 5. 31.~ 2013. 5. 31.까지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해야한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양성과정은 물론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업무활동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다.

세종터에 등록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중인 건축사는 10,600여명이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정회원은 8,100여 명으로 현재 2,500여 명이 비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축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법의 보호와 특혜 속에서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대한건축사협회의 공공성과 사회성은 물론 정관의 처리를 받는 일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며 다양한 사회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협회를 통하여 이수해야 함에도 이 또한 거절하고 있다. 광주, 전남·북에도 100여명이 넘는 비회원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협회의 등록원에 등록하여 정회원의 자격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동료건축사의 수입업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책무를 공유하는 큰 목적에서 모든 건축사는 건축사의 윤리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혁명 40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72만 명의 인구가 전북에서는 61만 명, 총133만 명의 인구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간 고향에서 우리는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이 그 도시의 격을 높이는 시대이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전주시 경기전과 조경전의 한옥마을, 군산의 세만궁개발, 전남의 슬로우시티와 천혜의 다도해 등을 벨트화 한다면 자고, 먹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그리고 다시 찾아 모여드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그 인프라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우리 건축사들은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축사로서 작품 창작활동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 그 가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건강하며 이러한 가로들이 모여 그 도시의 격을 높여야 할 책무가 우리 건축사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열악한 지역건설경기를 탓하고 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디자인 개발한 작품은 위험하다. Revit과 BIM의 툴로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그룹화하여 여러 건축사가 함께 창작 활동할 때에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게 될 것이다. 전국 5%의 그룹사가 95%의 업무량을 수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95%의 개인사가 5%의 업무량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건기법에 의한 감리업무량은 발주매출의 90%이상을 계약하고 있으나 설계수주매출은 60% 이상을 덤핑으로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규모를 갖추어 창의력 있는 작품활동만이 제도가 보장해주는 용역비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든 건축사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분리하여 이를 공영화하여 운영한다면 광주, 전남·북의 모든 건축사들은 상생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공의 질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민생건축사들의 척박한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지는 시너지효과도 따를 것이다.

공정이 힘이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 건축사들이 앞장서서 아름다운 도시로,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다시 모여 드는 도시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차고 넘치는 광주, 전남·북다움의 도시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모든 건축사가 협회의 등록원에 등록해야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때에 우리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그 대가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안보에서 민주, 경제, 복지, 「희망」으로 그 화두가 빠르게 진화되어가고 있다. 등록된 모든 건축사들의 삶에 부의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 희망은 침노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

턴키방식 사업 중단되어야



강기홍 사무처장
광주경찰청

턴키제도를 통한 폭리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부패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적발된 턴키방식의 입찰 비리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들은 정책 관료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언론계 등 광범위한 로비를 통해 부패의 먹이 사슬을 키워왔다.

지난 2010년 경실련은 4대강 사업 비용을 검증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가 조공사비 16개 공구의 전체 공사비 8조 6000억원의 공사비 중 56%에 달하는 4조 700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건설사가 챙기면서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구조가 가능한 것은 턴키공사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는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단일 사건 규모로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입찰 비리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입찰참여업체로부터 뇌물수수와 향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에 관여한 업체 간부 등 모두 28명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리고 광주시는 '이를 빼앗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입찰행정, 제도개선 등 혁신의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밝히고 연루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처분대책과 제도보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턴키방식의 사업추진이 낡은 비리

이번 사건은 연루자의 부정부패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지만, '4개 건설사가 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려 사업에 참가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 건설 사업 중 담합과 뇌물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턴키방식의 사업 추진이다. 지난 3월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RDF사업(폐기물 고형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턴키방식의 사업이었다.

실제·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엔 적발된 총인처리시설사업 역시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참가업체로부터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턴키방식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심의위원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하여 식사접대와 골프접대 등을 하며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한다. 즉 턴키방식의 입찰은 중소 건설사들을 배제하고 자본력을 갖춘 소수의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경실련에서 4대강 사업비용을 검증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가 조공사비 16개 공구의 전체 공사비 8조 6000억원의 공사비 중 56%에 달하는 4조 700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건설사가 챙기면서 4대강 사

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구조가 가능한 것은 턴키공사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역할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한마디로 턴키방식은 사업 자체의 작품성, 기능성, 경제성보다는 대형건설사들의 로비력, 자본력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독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사의 역할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2년에 집단으로 건설교통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으며 당시 턴키제도 폐지를 요구한 중견 건설사들은 대기업 건설사와 공동도급 지분을 할당받기 위해 오히려 대기업 기술자들을 접대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대형건설사들의 시장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입찰담합과 건설부패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은 담합을 통해 발주 물량을 서로 나누고, 낙찰율을 높이면서 예산 낭비로 이뤄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반복하게 한다. 턴키제도를 통한 폭리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부패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적발된 턴키방식의 입찰 비리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들은 정책 관료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언론계 등 광범위한 로비를 통해 부패의 먹이 사슬을 키워왔다.

턴키방식, 제도적으로 중단되어야

광주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턴키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 위원 비공개와 합숙 평가제 도입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턴키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턴키사업의 속성상 사업자가 낙찰받기 전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에서 사업자는 불법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고 건설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의 사업추진은 제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 명단 : 조선대학교 임만택, 경성대학교 고영춘, 순천대학교 이석배, 충북대학교 최영중, BEXCO 김윤일, 전북대학교 김영문, 전남대학교 고성석, 한국교통대학교 손태진, 호남대학교 박인수

2등작 ㈜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건축사
3등작 ㈜청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
4등작 ㈜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김 혁 건축사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
 대지면적: 53,301.9㎡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23,867.30㎡(기존), 7,702.12㎡(금회), 31,569.42㎡(전체)
 연 면 적: 40,046.05㎡(기존), 18,522.86㎡(금회), 58,568.91㎡(전체)
 건 폐 율: 44.78%(기존), 14.45%(금회), 59.23(전체 법정 60%)
 용 적 륜: 55.76%(기존), 27.51%(금회), 83.27%(전체, 법정 200%)
 주차대수: 440대(기존), 53대(금회), 493대(전체)
 건축규모: B1F~4F(기존), B1F, ~3F(금회), B1F~4F(전체)
 오후마감: 야연도강만 알루미늄패널, 칼라복층유리

2 등 작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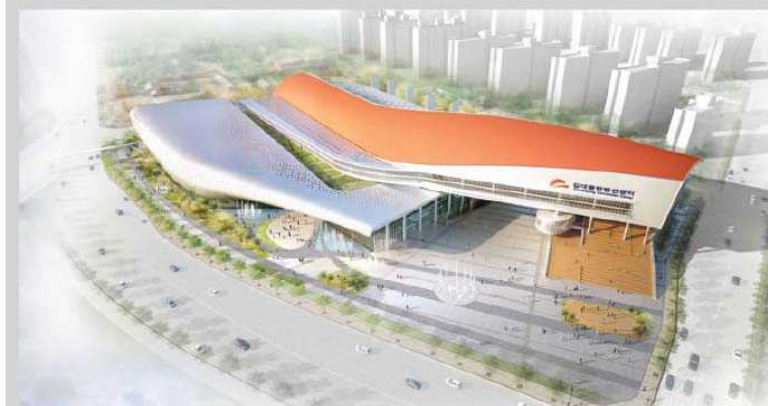


건축면적 : 30,794.14m²
연 면 적 : 58,143.92m²
건 폐율 : 57.77%
용 적 율 : 82.17%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3 등 작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구 건축사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건축사등록원 제도 시행,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 대한건축사협회, 지난 5월 31일 건축사 자격 제도 달라짐에 따라 '건축사등록원' 대내외 공식적으로 발족해
- 지난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 시스템 오픈,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증명발급 서비스 및 신고내역 조회' 등 기능



건축사등록원 공식 홈페이지(www.kirakarb.or.kr)가 지난 5월 31일 공개되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5월 31일,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시대적 요구와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에 맞추어 '건축사등록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한건축사 협회장이자 건축사등록원장인 강성이 회장은 건축사등록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사등록원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관리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엄격한 기록관리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실무수련자, 건축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의 자료 협조를 건축사자격제도 변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건축사자격제도 개요

- 2012년 5월 3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제도는 건축설계 시장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사의 양성단계부터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활동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게끔 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 「건축실무에 있어 전문인의 국제기준 권고안에 대한 UIA 협정」은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정,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정부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시 이를 협정 초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UIA 협정 -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건축교육과정의 변경, 건축사시험방법, 과목변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30일 실무수련, 자격검정,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반영한 건축사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위탁 하였다.

- 건축사자격제도의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건축사업무

▷ 기존제도 <

기존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학력, 실무경력의 요건과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자격등록 >> 실무교육 >> 갱신등록

▷ 변경제도 <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UIA 국제권고안을 기준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수련

- 실무수련은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는 누구인가?
-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대학원: 건축전공 학사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학 비인증 과정 졸업자(2023년까지 유예): 실무수련 4년

-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건축사예비시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건축사자격특별전형: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4년제 건축분야 전공자가 실무수련 할 수 있는 방법은?
- 실무수련자에 대한 자격은 5년제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해당 학위 이수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전공자는 대학원진학 또는 편입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건축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을 말한다.

- 실무수련 기간은 실무수련을 신고하고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수련내용을 16가지 수련항목별로 465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소속: 건축사사무소

기간: 3년 이상

신고내용: 참여사업에 대해 16가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

교육이수 예비시험 경력관리 자격시험 자격취득 건축사업무

- 실무수련 대상자별 실무수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

- 먼저 5년제 과정인가, 건축대학원 과정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인증, 비인증 여부에 따라 3~4년으로 각각 실무수련기간이 다르다.

- 이에 따른 실무수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무수련기간	인증여부	비고
인증학위	3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비인증 학위	4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인 대학원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④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사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2023. 12. 31까지 이수한 자

- 실무수련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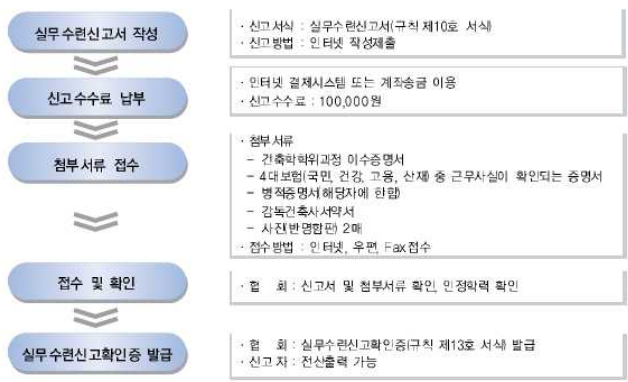
- 실무수련제도는 2012년 5월 31일부로 시행되며, 본인이 실무수련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가장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무수련은 신고시점부터 실무수련으로 인정된다.
- 5년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경력에 있는 자도 실무수련 신고시점에 따라 인정 환산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은 어떻게 되나?

-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한다. 다만, 2012년 5월 31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은 80%, 실무수련 신고 이후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한다.
- ※ 건축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경력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건설회사 등에서의 건축경력은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등이 있어야만 100%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실무수련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실무수련 신고는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 감독건축사는 누구인가?
- 감독건축사는 건축사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를 말한다.
-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2012. 5. 31 ~ 2013. 5. 30까지 1년 동안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수련확인서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
- 실무수련자는 언제든지 실무수련사실을 실무수련확인서에 작성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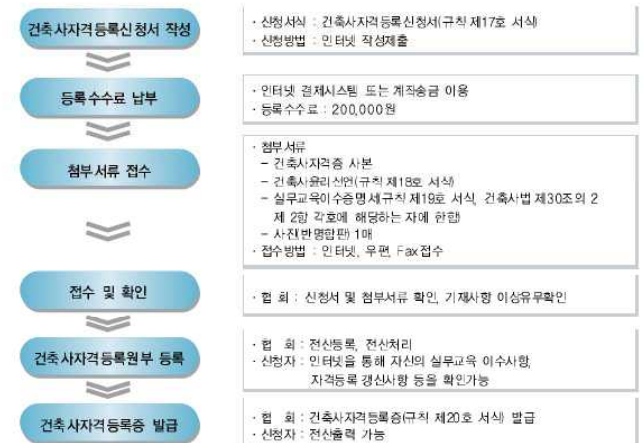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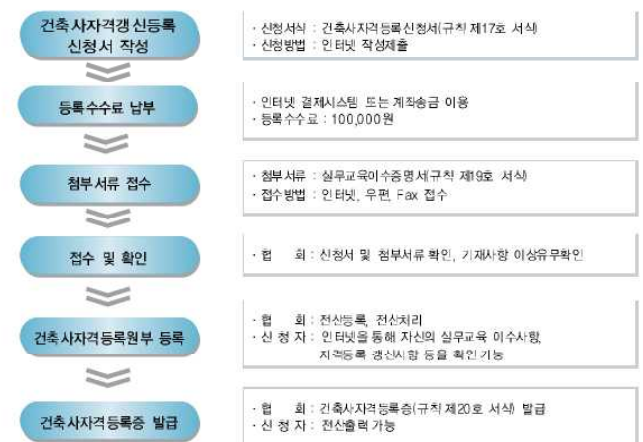
- 건축사자격등록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 동안 건축사자격 취득자 관리는 국토해양부, 건축사업신고 관리의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축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는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건축사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손쉽게 알 수 없었고, 국가입장에서는 건축사라는 국가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국제 경쟁력 및 국가발전계획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반영한 것이 이의 제도이다.
-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
-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작하려는 모든 건축사를 말한다.
 - ※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
 - ①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②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 ③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여타 분야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
- 건축사자격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2012. 5. 31 ~ 2013. 5. 30까지 1년 이내에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건축사자격등록 시에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이다. 다만,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자격등록 시에도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기 간	교육 이수시간
건축사자격 취득자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	없음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 초과	없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12시간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없음
건축사자격 취소자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	없음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	12시간
건축사자격 등록 취소자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없음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	12시간

-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신청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대상자는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5년의 기간이 도래한 자를 말한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6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신청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실무교육

- 건축사 실무교육이란?
- 건축사 실무교육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직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한다.
-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
- 건축사 실무교육은 윤리교육, 전문교육 및 자기개발로 구분하며, 실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활동참여가 있다.

종 류	내 용	교육방법
윤리교육	건축사의 윤리교육	집체교육
전문교육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자기개발	건축사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 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 <

- 건축사 실무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시·도건축사협회 포함에서 실시한다.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신청은 어떻게 하나?
- 윤리교육, 전문교육은 실무교육실시기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로 이수결과를 일괄 통보하므로, 건축사 개인이 실무교육 이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자기개발은 활동참여 후 건축사 개인이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5년 내 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43호 서식)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세계의 신도시_ 10부

매립지를 활용한 신도시_코럴스프링스/ 전원도시이론을 적용한 기업도시_키티매트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_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_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웰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로스앨레모스_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미션베이호_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후도시 볼더시티_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 선례지 섬머린_2012년 2월호
- 7부 : 배후 주거단지 셀러브레이션, 데시벨 제로(0) 도시 시사이드_2012년 3월호
- 8부 : 건축적 실험도시 알코산티, 학원(대학)도시 애버마리아_2012년 4월호
- 9부 : 민간기업 주도의 카포레이, PUD 개념을 적용한 캐롤라이나포리스트_2012년 5월호

City of Coral Springs



도영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91@hanmail.net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 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코럴스프링스(City of Coral Springs)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중동부 대서양에 접한 마이애미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km 지점 브로워드(Broward)카운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planned community)로 행정구역 면적 약 62.0km²에 인구는 약 127천 명(2007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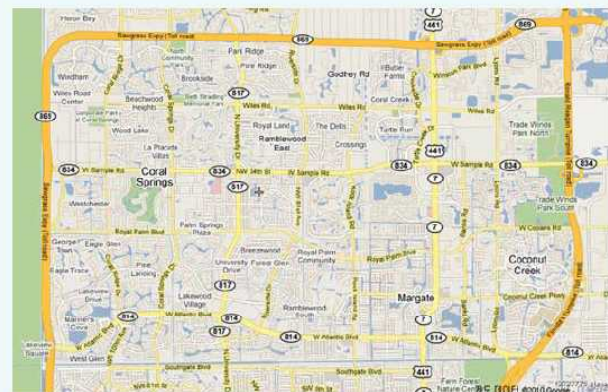
- ① 민간 개발회사인 WCI⁽¹⁾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개발을 담당하였다.
- ② 매립지인 이곳은 1961~1965년 회사⁽²⁾가 매입(약 40.0km²)하여 196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 ③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격자형 간선가로를 적용하였다.
- ④ 매립지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전체에 거미줄 모양의 자연스러운 수로 및 가로를 배치 개발하였다.
- ⑤ 1963년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었다.

코럴스프링스는 1986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박물관과 극장 등이 개관하였다. 2003년부터 주거 및 상업 건축물들이 많이 증축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³⁾들에 의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① WCI : WCI Communities, Inc., 1946년 설립된 설계, 건설, 재정, 토지매입,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주택단지 개발회사이다. Westinghouse Electric Corp.(2005년CBS Corporation에 통합)은 자회사인 Coral Ridge Properties를 설립하였다. 때문에 도시이름도 회사이름을 인용하였다. 주로 미국 동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사는 보닛아스프링스(Bonita Springs)시에 위치하고 있다.
- ② 회사 : Coral Ridge Properties, WCI 자회사이다.
- ③ 잡지 : Money(2006년)는 미국 도시 중 27번째로 좋은 도시, Morgan Quirno (2007년)는 10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선정하였다.

키티매트(District Municipality of Kitimat)

캐나다 서부 서쪽으로 태평양에 접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서부 키티매트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도시이며, 신도시



코럴스프링스 시가지도

(company town)로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50년 회사⁽¹⁾에서 계획, 개발된 기업도시로 계획인구는 약 5만 명이었다.
- ② 회사는 알루미늄 제련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소와 터널(16.0km), 송전선로(82.0km), 제련소 등 관련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을 위해 도시개발을 주 정부로부터의 확보를 개발하였다.
- ③ 회사는 스타인(Clarance Samuel Stein)을 책임자로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였다.
- ④ 스타인은 전원도시이론을 기본으로 철저하게 주거기능(community)과 공업기능을 분리하였다.
- ⑤ 도시의 중앙부에 몰(City Center Mall)을 설치하고 주위에 루프형 가로망을 적용하였으며, 각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약 45.0km의 보행자도로를 계획하여 개발되었다.

키티매트는 시민들이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를 만들었고,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키티매트는 행정구역 면적 약 242.6km²에 인구는 약 9천 명(2006년)이며, 도시내외의 자연적 인공적 레크리에이션시설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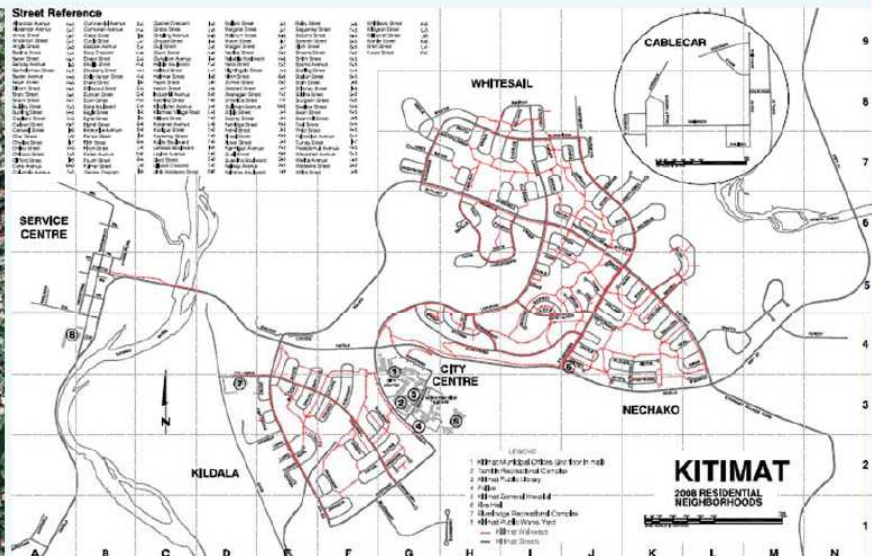
- ① 회사 : Alcan/Aluminum Company of Canada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District Municipality of Kitimat



코럴스프링스의 전형적인 주거지 전경



키티매트 가로망도

건축은 우리의 '삶', '행동' 등을 담은 '큰 그릇' 이다. _정종민 건축사

전남 순천의 정종민 건축사. 그는 전통건축 전문가로서 각 중 대중매체에 전문분야의 강연자로... 또는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 부교수로 활동 있는 교육자로... 그리고 여러 지역 신문 및 잡지 등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로... 건축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심분 발휘하며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본지 편집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명인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다음은 정종민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이하 기) :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민 건축사(이하 정) : 원래 저는 고등학교때 문과출신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큰 뜻을 품고 공과 계열인 건축공부에 임했습니다. 1996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립 순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와 박사학위(전통건축전공) 과정을 마쳤으며, 전통건축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그 능력의 쓰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 : 건축사님이 확립하신 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정 : 건축 철학이라 함은 너무 거창한 질문이고 저의 건축 신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의 3요소라 하면 '구조', '기능', '미'를 들 수 있는데 현재에 외서는 너무 '미'에 치중한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구조는 기본이고 기능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능을 중요시 하다 보면 구조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지만 기능에 따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조와 미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 : 본업뿐만 아니라 본업과 연계한 활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 전남 순천신문에 2008년 1월~2009년 12월까지 월2회 '전통건축산책'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으며, 순천시립 도서관 '한옥글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옥과 동양사상'을 3년(2009~2011)동안 6학기를 강의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전남동부방송(D.B.S) '문화공간 소통' 프로그램 30분 방영용 한옥이야기 1,2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립 순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 제일대학에서 겸임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남 한옥정책 연구위원과 순천시 한옥위원회 심사위원, 순천시 건축심의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 : 특별히 전통건축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 : 전국에 있는 전통건축(고택, 사찰, 향교, 서원 등)을 10여년에 걸쳐 300여 곳을 답사하였고 답사사진 및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전통건축에 대한 교육과정도 수료했으며, 최근 순천시 도사동 안풍마을(행복마을) 한옥 15채를 설계, 준공하였고,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도선국가마을 13채도 설계를 완료했으며, 고흥군 대서 마름 마동 한옥 15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을 설계하다 보면 공학적인 면과 동양사상적인 면이 맞물려 있어서 자연스레 동양사상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양 3국(중국, 일본, 한국)역사와 주역, 음양오행, 풍수지리, 사주명리 등에 관심과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레 동양철학사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기 :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운 때가 있다면?

정 :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운 때는 사용검사(준공)시에 감사패를 받을 때와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 그 곁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그 감정은 아이를 키워 시집보내는 아버지의 심정과 시집가고 나서 아무 탈 없이 잘사는 딸을 보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반

대로 부끄러운 때는 설계 후에 기능상으로 불편을 초래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 : 설계하셨던 작품 중에 대표작을 꼽는다면?

정 : 대표작이라고 꼽기가 쉽지만 최근 작품을 소개하면 순천시 장천동 이충한옥과 구례 아생화 연구소, 최근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완료한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결혼 예식장입니다. 구례 아생화 연구소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생화 씨앗을 보관하고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면적(660㎡)은 작지만 구례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관광자원 활용목적으로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요구하였고, 고민 끝에 산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연구소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능성을 풀어나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 : 작품활동하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정 :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평당 가격을 논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조금 다릅니다. 순천시청 옆(제일은행) 2층 한옥을 설계할 때입니다. 원래 상업지역/방화지구에서 목조건축은 허가되지 않는데 건축주(풍수지리연구가)는 시공비가 많이 들더라도 전통 한옥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립시험연구소에서 목재의 탄화 시험을 거쳐 인허가 준공을 받았던 사실이 잊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도와주신 인허가 담당자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 :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 : 선배님들 보단 후배 건축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라는 직업이 진정한 정년이 과연 몇 살일까?" 그 정년을 멋있게 맞이하려면 부지런히 공부(진학)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는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 그동안 순천신문, 순천인 그리고 현재 전국지 새한일보에 송고하고 있는 한옥이야기를 모아 올해 말쯤 출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할 때마다 메모해둔 저의 '성공노트'를 정리하여 내년쯤 또 한편의 책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사로서는 최초로 삼성화재보험 교양 강좌 전담강사로 위촉되었기에 강연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60대 이후의 노후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시골집 닭 키우기, 텃밭 가꾸기 등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 : 후배 건축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어제의 지식은 옛날의 지식으로 전락하고 오늘의 지식은 내일 썩어먹힐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시형 박사님의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취재·정리 : 이광영 건축사기자 : the-lees@hanmail.net
박승국 전담기자 : gjkira@empal.com



전남 순천 / 명인 건축사사무소 정종민 건축사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결혼 예식장(2012년)



구례 아생화 연구소(2008년)



국립공립시험연구소에서 목재의 탄화 시험을 거쳐 인허가 준공을 받았던 시청 앞 한옥(2008년)

2012년엔

전북을 방문해요
미소로 맞이해요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건축사님들의 전라북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일동 -



맛과 멋이 한상 가득
2012전북문화의해
JEONBUK 2012, KOREA



전라북도건축사회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_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 · 서원의 전당후재 형

1부 : 공간문화, “ㄷ”형 전통 가옥 - 2012년 5월호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 · 서원의 전당후재 형 - 2012년 6월

3부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2012년 7월 예정

4부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2012년 8월 예정

5부 : “ㄷ”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 2012년 9월 예정



김지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jm7192@naver.com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지역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건축문화’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전남지역 전통건축 분야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를 2012년 9월호까지 위와 같은 주제로 5회 연재한다.

정자는 조선의 선비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당시의 문화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구조물이다. 자연과의 소통이 정자 건축의 기본 콘셉트였고, 내면에는 심오한 성리학적 의미도 품고 있다. 조선 초 성균관과 오부학당, 그리고 지방의 향교는 지방의 작은 고을에까지 유교문화를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축적으로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고, 이는 16세기 중엽에 등장한 서원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시대 학교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1. 탐진강변의 정자

조선의 사대부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건축적 공간을 향유했다. 살림집에서도 사랑채라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고 더 나아가 재각, 사우, 서원 같은 공적 개념의 공간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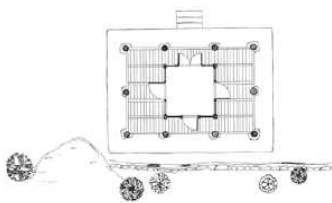
정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로 지은 집 밖에 지은 또 하나의 집이다. 하지만 정자는 조선의 선비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당시의 문화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구조물이다. 자연과의 소통이 정자 건축의 기본 콘셉트였고, 내면에는 심오한 성리학적 의미도 품고 있다.

전남에는 곳곳에 품격이 있는 수 많은 정자가 있다. 특히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식영정, 명옥헌, 환벽당, 면암정, 광풍각 등은 호남의 대표적 정자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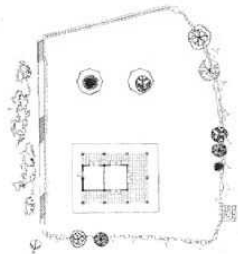
장흥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탐진강변에도 주목이 되는 정자가 꽤 많이 있다. 관권이 수려하고 역사적 인물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종때 전라도 관찰사, 이조참판을 지낸 사인(舍人) 김필(金弼)(1426~1470)이 지은 사인정(舍人亭), 임진란때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운 문희개(文希凱)(1550~1610)가 지은 부춘정(富春亭), 이외 동백정, 창랑정, 경호정, 용호정, 영귀정 등이 탐진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정자는 한결같이 중앙 또는 측면에 방이 있다. 사면이 모두 개방된 마루만으로 된 정자와는 크게 구별된다. 시계절 모두 이용 가능한, 상당히 실용성을 감안한 이러한 타입은 특히 전라도 지역 정자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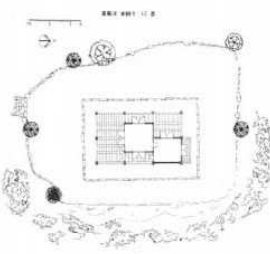
호남의 정자와 영남의 정자를 두 지방의 학풍인 주기론(朱氣論)과 주리론(朱理論)으로 해석하여 정자의 건축적 특성을 해석한 건축가(한성호, 동아일보 옛집일기, 2012)도 있다. 그는 호남의 정자는 주위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호방하게 서 있는 반면 영남의 정자는 살림집과 그리 멀지 않거나, 아예 살림집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즉 영남의 정자는 현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내적인 정자라고 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학술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16세기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는 주자(朱子)에 대한 숭배열이 최고조에 달해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이나 무이정사(武夷精舍)같은 것을 본보기 삼아, 살림집과는 별도로 풍광이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학문도 하고 벗들과 교제를 하는 작은 집, 즉 정자, 서당, 정사 등을 지었다. 영, 호남 모두 마찬가지다.



사인정 배치도



부춘정 배치도



영귀정 배치도



사인정



부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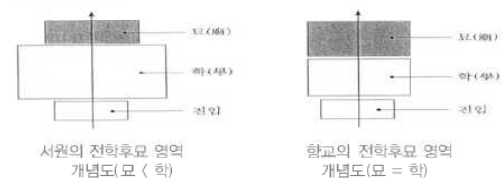
창랑정

2. 향교 · 서원의 ‘전당후재’ 형

태조가 유교이념 보급과 정착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삼은 것 중 하나는 바로 흥학(興學)이다. 즉, 학교교육을 진흥시켜 유교중심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향양의 성균관(成

均館)과 오부학당(五部學堂), 그리고 지방의 향교(鄕校)였다. 이러한 관학은 조선초 지방의 작은 고을에까지 유교문화를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관학은 건축적으로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고, 이는 16세기 중엽에 등장한 서원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시대 학교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묘(廟)와 학(學)이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역의 전체 구성은 사당이 있는 제향구역과 강당과 재실을 갖춘 강학구역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이 두 구역이 향교와 서원 건축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부차적으로 사원과 진입구역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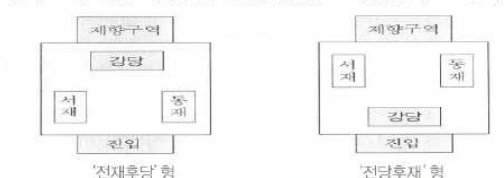


강학구역은 선현의 교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학교로서 향교, 서원의 설립의미와 가장 가깝게 부합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강당과 동 · 서재가 두 건물로 들어서는데 중앙으로 강당을 배치하고 그 전면 좌우측으로 기숙사적인 동 · 서재를 둔다.

강학구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물 배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전당후재(前堂後齋)형이다. 이 형은 강당과 함께 동 · 서재가 비록 독립적이기는 하나 제향구역 쪽으로 향하게 건물을 앉힌 구조다. 이는 제향과 강학 두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켜 강당과 동 · 서재가 서원 전면 쪽으로 향한 전당후재형과는 배치상으로 크게 대조가 된다.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1590년 창건, 1672년 현 위치로 이전)은 현존하는 호남지방의 유일한 도학서원으로서 ‘전당후재’ 형식이 잘 드러나 있다. 영남 지역의 서원은 오로지 경북 상주의 흥암서원(1702)만이 필암서원과 같은 구조이고 나머지 모든 서원은 ‘전재후당’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공교롭게도 흥암서원은 서원계인 송준길을 배향한 서원이며 지리적 환경도 기호지방의 평지형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파에 의한 결과라는 매우 의미 있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호학파의 메카서원이 논산의 토약과 노강서원은 ‘전재후당’형으로 되어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모습은 두 지역의 향교건축도 매우 유사하다. 즉 영남은 ‘전재후당’, 호남은 모두 ‘전당후재’형으로 되어 있다.

향교는 주로 조선초에 건축적 형태가 완성된 관학이다. 따라서 학파와 관련을 짓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건축사학과 인문학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아니면 단순히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건축 관습(기능성으로 접근)인지도 모른다.



고흥향교 동재



낙산향교 강학구역



나주향교 강학구역



필암서원 강당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정정합니다. 2012. 5. 10일자(30호)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1부 내용 중 전남지방 주요 'ㄷ'형 안채가옥명에서 '이건종'을 '이건중'으로 정정합니다.

국내 건축구조분야(내풍구조)의 권위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와의 만남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는 건축구조분야에서 특히 내풍구조 부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작년 화제가 됐었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흔들림의 원인 규명에 가설을 내놓으면서 연일 매스컴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에 위치한 연구실을 본지 서재형 편집인과 김미영 편집위원, 양우현 편집위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두현정 학생기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2012년 6월 10일자(31호)부터 '螢窓雪案'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광주·전남·전북 지역 4~5년제 대학 건축 관계 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업적, 활동, 철학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식의 향상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김영문 교수(이하 김 교수)의 연구실을 들어가자 보이는 건 두꺼운 연구 관련 서적들과 서류들이었다. 널브러진 주변 환경 속에서 보이는 그의 첫인상은 어지러운 학자다운 면모의 인상이었다. 연구 활동에 몰입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인터뷰 시간을 내준 김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터뷰에 돌입했다.

전국대학들 중 내풍구조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김 교수는 "내풍구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를 2명이나 보유한 학교는 전북대학교 밖에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였다. 제자이자 같은 학과 교수인 유기표 교수와 함께 SCI 논문(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게재와 국내학술지, 학술회의 등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언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풍동실험센터(<http://wind.koced.net/>)를 소개하였다.



국내 최고의 풍동실험시설을 자랑하는 대형풍동실험센터

김 교수는 "지난 2009년 완공된 대형풍동실험 시설은 수직 순환형 폐회로 방식의 경계층 풍동으로 부지면적 4,443㎡, 건축면적 3,479㎡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풍동실험을 위한 대형풍동 1식, 소형풍동 1식 등의 장비들을 갖춰 그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이며, 세계에 서 5위권 규모의 대형실험 시설이다"며 "폭이 5m인 고속시험부의 경우에는 최대 풍속 30m/s까지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축소 모형실험을 할 수 있어 사전에 시설의 내풍 성능을 시험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토목, 건축, 환경, 기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타워펠리스부터 여수엑스포 국제관, 디지털 갤러리 등 풍동실험하기도 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풍동실험시설의 실적을 묻자 김 교수는 풍동실험센터와의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연구동을 우선 언급하며 "제가 발로 뛰며 일궈놓은 연구동이자 풍동실험센터의 모태가 되는 이곳에서부터 연구실적이 이뤄졌다"고 하였다.



김영문 교수가 직접 발로 뛰며 일궈놓은 연구동

풍동실험 프로젝트 실적에 유명 건축물만 40여개가 가가웠고 그 중 대표적인 몇 개의 프로젝트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타워펠리스', '하이원 리조트 호텔',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 '서남권 야구장', '서울시청사',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등 신축공사, '여수세계박람회 디지털 갤러리' 등 이었다. 실제로 김 교수가 일궈놓은 연구동에 방문했을 때는 광주 새아구장에 대한 풍동실험이 진행 중이기도 하였다.



대형풍동실험센터에는 풍동실험을 여러 프로젝트의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다.

구조 관련 특허출원된 연구만 7가지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구조와 관련한 특허출원된 연구만 7가지였는데 '비틀림 축전이 가능한 공력전동 집발장치', '압전소자를 이용한 구조물의 손상계측장치 및 방법', '압전소자를 이용한 구조물의 플트체결상태 계측장치 및 방법', '막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측정장치', '폭설피해의 방지를 위한 비닐하우스 보강부재', '폭설피해를 방지를 위한 비닐하우스 골조구조', '폭설피해의 방지를 위한 비닐하우스 보강구' 등으로 경제 산업현장에 확실히 필요한 특허출원이 다수였다. 이와 같은 뛰어난 여러 연구실적으로 인해 2002년 한국풍공학회 공로상과 2006년 한국강구조공학회 논문상, 2007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바쁜 연구활동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또한 정신없이 바쁜 연구활동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구조분과 위원과 전주시 건축 관련 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 위원,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전주산업안전기술지도원 건설안전자문위원, 익산시 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풍공학회 위원 등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으며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

그는 학자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신이기도 한 "'학문에는 왕도가 없으며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주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은 책임질 줄 아는 현명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인터뷰를 끝마칠 때 즈음 김 교수는 자신이 전문인이자 교양인으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학자로 남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좀 더 자유로운 연구를 통해 '연구실적'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 '이 사회에 유익한 연구'를 펼쳐나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가 가진 이러한 마인드가 그를 국내뿐만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자로서의 반열까지 올려놓은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취재: 서재형, 김미영, 양우현 건축사기자
정리: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두현정 학생기자 dh-jishhk@hanmail.net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

〈학력〉
1974년: 휘문고등학교 졸업
1978년~1989년: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1993년~1993년 말: 미국 Notre Dame 대학 토목공학 및 지질학과 교환교수
(A. Kareem 교수의 풍공학 연구실)
1994년~현재: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995년~1996년: 일본 동경 전기대학 건설공학과 교환교수(H. Kawai 교수의 풍공학 연구실)

〈경력 및 회원〉
1982년~현재: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1980년~현재: 한국전산구조학회 정회원
1991년~현재: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건축구조분과)
1994년~현재: 한국강구조학회 정회원
1995년~현재: 일본풍공학회 정회원
1997년~현재: 한국풍공학회 정회원
(한국 풍공학회지 편집위원)

이외 다수

〈저서〉
1998년 5월: 실무자를 위한 건축물의 풍동실험 가이드북(한국풍공학회)
1998년 8월: 건축구조물의 내풍설계 (한국전산구조학회)
2002년 4월: 건축물의 내풍설계(한림원)

KOCED 대형풍동실험센터

56~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TEL 063-270-4813 FAX 063-270-4814
담당: 유정열 박사

광고 및
구독신청

간혹 문학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1,5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1,200,000원
- 하단광고: 500,000원
- 하단1/2광고: 300,000원
- 하단1/3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 입금 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특별기고

여수를 탐방하다. - 여수 토박이가 본 여수는...

정세영 학생기자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있어 '로 코르뷔제'에의 '통상 교회'와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를 상상 하게 하였다. 우리는 감동을 머금고 채 다음 장소로 떠났다.

두 번째 장소는 여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순신 광장'이었다.

한쪽엔 초창물, 한쪽엔 분수대, 바로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이순신 장군이 바라보는 듯 한 전망이 있다. 여수에서 연인들의 대표적인 데이트 장소이고 10대~6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충민사' 사당을 답사하였다. 시내 옆에 자리한 '잔남관'과는 달리 시내 도서관 방향에 있는 '충민사'는 원가가 한적하고 조용하였다. 가슴이 막히고 우울할 때 여기를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여수 엑스포로 향하였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내가 인턴 활동을 하였던 '국제관-독일관'이었다. 무리하게 줄을 서서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 독일관 안으로 들어갔다. 영화를 보여주듯이 대형 스크린이 바로 펼쳐졌고, 다 끝이 난 다음에는 대형 스크린이 반으로 쪼개져 새하얀 모래밭을 보여주었다. 정말 내가 해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 밖에 오만관, 호주관, 카타르관, 대서양관 등 많은 전시관을 가 보았다. 조금 지쳐있을 때 즈음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Big - o'에서 물이 나오며 꽃 모양과 불이 켜져 나오는 것이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Big - o show'가 끝이 나고 시간관계상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에 또 방문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모든 탐방을 끝마친 뒤 친구들과 시원한 맥주를 한잔씩 하며 오늘 탐방의 아쉬웠던 점, 즐거웠던 점을 토로하였다. 글을 마쳐며 마지막으로 여수 EXPO가 끝나지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한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 두번째

- 건축사무소 유오에스 정기정 대표, 젊은 건축가와 건축 작업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지난 5월 29일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 두 번째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로 건축사무소 유오에스 정기정 대표를 초청하여 '젊은 건축가와 건축 작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2010년 한국건축가협회와 새 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0 젊은 건축가상' 수상 건축사를 초청하여 현재까지 작업했던 작품들과 에피소드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 주제인 '젊은 건축가와 건축 작업'에 관한 질문에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유익한 강연회가 되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남자영 학생기자 11288.66@hanmail.net

제9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요강

1. 공모주제
 - 도시경관·건축·구조·조경·내거 살고 싶은 집 그리기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생(유아원 1~3학년/초학년 4~6학년) 중학교 재학생
3.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 (월) ~ 8. 30 (목) PM 6:00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작품요요
 - 용모는 한지 1장(가로 40cm, 세로 50cm) 내지는 10cm 이하입니다.
 - 작품규격: 캔버스 4점(27cm x 38cm x 53cm) 2등하고 재학생 10cm 이하 가능
 -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 받아 이름, 학교명, 학년, 연락처, 작품명 작 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도시연구원 (4층) 500-876 (사무관·건축·도시연구원) 사무국
 - 우편제출의 경우 9월 15일까지 도착하여 회신하여 접수
 - 제출처: (사)광주건축·도시연구원 (사무관·건축·도시연구원) 사무국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9월 15일
 - 수상자 발표: 2012. 9. 15 (월) http://gj.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2012. 10. 27 (토) (개별행사)
- 전 시: 2012. 10. 25 (목) ~ 10. 28 (일) (광주건축·도시연구원)
- 시 상:
 - ① 초·중등부
 - 최고상(총 3명): 광주광역시교육청장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 금 상: 4명: 광주광역시교육청장상 및 20만원 상당 상품
 - 은 상: 8명: 광주광역시교육청장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 상: 15명: 대한건축가협회장상, 전남지회장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선(2명): 한국건축가협회·광주지회장상
 - ② 대학부
 - 최우수상(2명): 10만원 상당 상품 / 1점
 - 우수상(5명): 5만원 상당 상품 / 5점
 - 입선(2명): 상장
- 6. 주최 /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광주건축·도시연구원
-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도시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도시연구원의 홈페이지 http://gj.kira.or.kr Tel. 062-521-0025 ~ 6 Fax. 062-528-0025

(사)광주건축·도시연구원

특별기고

선비의 기상과 사람의 정신 - 담양 소재원을 다녀와서..

김태웅 학생기자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날씨가 한여름처럼 무더웠던 늦은 봄 5월 말 담양 소재원으로 답사 다녀왔다. 소재원은 자연경관을 살려 답사한 한 국적인 정원- '원림'이기도 하는데, 조선 중종 때 선비 소재 공 양산보(1503-1557) 선생이 기묘사화로 소승이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낙향해 자연 속에 파묻혀 살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TV와 책에서 서만 봐왔던 소재원에 대해 무척 기대가 컸던 터라, 소박한 입구를 보고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구를 지나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중에 약간 생소하면서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참을 걸어간 뒤 종여에 '앗! 대문이 있네'라며 소리를 질렀다. 다만 수로와 인도 가 나누어진 공간 사이와 양쪽에 대나무가 종횡횡할 하 듯이 소재원 양쪽 길가 울타리 너머로 대숲이 길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 걸어 올라가자 제일먼저 눈에 띈 '광풍각(光風閣)'은 마치 땅 위에 부유하고 있는 유람선 같다.

광풍각을 보고 있자니 '문치'란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인상이 깊게 남았던 것 같다.

광풍각을 거쳐 조금 더 올라가니 '오곡문(五曲門)'이라 쓰여 있는 담이 있었는데, 담 밑의 구멍으로 흐르는 계곡을 담은 밖의 영역(외원)과 담 안의 영역(내원)을 이어주는 문이었다. 오곡문을 지나 보이면 '제월당(月月堂)'이라는 곳은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독서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제월당-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듯처럼 제월당에 앉아 있으니 산새소리가 청아하면서 흥겨운 소리가 계속 들렸으며, 시원한 바람에 마음까지 여유로워졌다.

제월당은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작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주위에 산과 마당, 물까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기도 하였다. 각각의 존재를 살려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제월당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오곡문처럼 물길을 막기보단 물길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서 자연의 훼손보다는 조화를 중요시 여긴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초라해 보이는 소재원의 입구 때문에 실망감이 없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선비의 기상과 사람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맑고 깨끗하다'라는 '소재'의 뜻처럼 심신이 상쾌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당시라고해서 멀리 원정을 가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소재원과 같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인지하지 못한 건축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다.

특별기고

우리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두현정 학생기자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따뜻한 햇빛이 가득하고 덩달아 바람도 살랑거리는 요즘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의 졸업설계가 한창이다. 날씨도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부여잡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올 9월에 있을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졸업설계의 주제는 '도시재생'으로 전주시 전체가 Site의 범위이다. 3~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전주시터미널, 전시장, 동남문 일대, 남부시장, 전주천 일대 등 전주시에

있는 site 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site 안에서 각각의 대지를 선정하여 팀별 프로젝트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이다. '도시가 죽는다는 것'은 도시 내부에서 힘을 잃었다 할 수도 있고, 외부의 변화에 대응해 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한다면 도시재생의 핵심은 도시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키워주는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내야 달려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도시만이 가지는 힘으로 경쟁력을 높이면 좋은 도시재생 사례가 되고,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도시 자체의 역량을 무시한 채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면 도시재생의 나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마다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또는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학생인 우리의 작업은 과거를 답습하여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으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것이다.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우리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9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요강

1. 출품작품
 - 작품내용: 아름다운 도시 경관 (건축물·구조물·조경·공공미술)
2. 출품자격
 - 응모자격: 건축과 사제에 관심 있는 모든 자
3. 작품접수
 - 일 시: 2012. 8. 20 (월) ~ 8. 30 (목) PM 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12" x 16" 사이즈 사진 (규격 입수)
 - 제출서류: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 록 비: 없음 (1인 2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사)광주건축·도시연구원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도시연구원 (4층)
5. 입상작 발표
 - 2012. 9. 7 (금) 홈페이지 http://gj.kira.or.kr 게재
6. 시상
 - 대 상 (1등):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2등):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3등):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려상(10등):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 선(다수): 상장 및 기념품
7.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의 작품과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상장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됩니다).
 - 입상작품은 제9회 광주건축·도시포럼(2012. 10. 25~10. 28/김대중컨벤션센터) 기간 중 전시
8. 주최 및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도시연구원

Tel. 062-521-0025 ~ 6
E-Mail: gj.kira@empal.com

(사)광주건축·도시연구원

세계건축사들과 함께하는 광주폴리(Foly), 현상설계 공모

— 오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모접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가능



지난해 9월 금남로 공원에서 열린 2011 광주폴리(준공식)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날 말 2012년도 '광주폴리' 사업 중 금년도 1개 작품에 대해 오는 6월 27일까지 광주 폴리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폴리사업은 2011년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업으로 진행되어 세계적인 건축사 10여명(도미니크 페로, 피터아이젠만, 조성용 등)이 함께 참여하여 광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11개의 폴리작품을 설치하여

국내외에 많은 관심과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012년 광주폴리는 지난 5월 4일 독일 출신 건축사 '니콜라우스 허쉬'가 공식적으로 감독에 선임됨에 따라 추진계획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다음은 광주폴리 현상설계 공모 주요 내용이다.

- 공모명: 광주폴리(FOLY) 현상설계 공모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능 하며 1개 팀은 4인 이내로)
- 공모접수: 2012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2년 7월 중

※ 공모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b.or.kr/) 참조

광주시, 2012 제2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도시의 지속 가능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홍익대 이순인 산업미술대학원장 강연



이순인 교수를 초청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토론도 이어졌다.

'광주U대회' 본부 건물, 주일초 녹색건축 리모델링 하려했으나...

— 해당 학교 학부모 존치 요구, 학생들 공사현장에 둘러싸인 채 수업해야할 판



지난 달 24일 광주광역시 2015년 U-대회를 친환경 '에코버시아드'로 개최하기 위해 주일초등학교 건물을 녹색건축으로 리모델링해 U-대회 본부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일초등학교에 2013년부터 2년 동안 200여명의 예산을 투입해 3층 건물 4동 9280㎡에 단열재, 삼중창호, LED 조명 등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고 옥상녹화, 빗물이용 연못 등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년지 절감비 70~100%로 예상되며, 건물 신축에 비해 22%이상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뿐 아니라 광주의 환경·인문·포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 동참의지 표명과 저탄소 녹색기술 역량을 과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후변화 및 녹색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계획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계획을 내용함에 따라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일초 재배치 문제를 놓고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6%, 78%가 학교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3차 설문조사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해 재배치 문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3차 설문조사에서도 존치여부가 나오면 학생들은 공사현장에 둘러싸인 채 수업해야만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최, 호남권 건축도시정책 포럼 열려

—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서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0여명 참석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12년 제2차 전국건축·건축도시정책 포럼(호남권)을 개최하고 지역의 건축·도시정책 발굴과 건축문화의 가치에 대하여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은 건축·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학생,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장영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장영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김승수 정무부지사의 환영사, 전라북도의회 김용화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제1주제 발표에서 '설계, 시공, 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표준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장영 위원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장영 위원장은 국가 전반에 걸친 낭비,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건축품질 향상과 공기단축,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하여 설계, 시공, 자재의 건축정보 호환을 위한 통합표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2주제는 '한옥의 발전 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 녹색 건축으로서의 가능성, 한옥의 경쟁력에 대하여 피력하고 한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한옥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한옥 공공교육기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건축도시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건축도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인들의 노력과 관심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다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48명 모집하고 6개월 교육 과정 계획

지난 5월초,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녹색성장시대에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한옥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명지대, 전북대, 경성대, 강원대, 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건축사, 건축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자 격시험응시 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집수를 받았으며, 오는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비 30만원 및 예치금 30만원(예치금은 수료 시에 반환되며 미수로 또는 중도 탈락 시 반환되지 않음)을 납부하면 된다.

6월 28일부터 24주간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과정별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특강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집 고쳐주기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해 추진될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옥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옥설계전문인력 담당(02-3415-6880,6851)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이 지역 건축계에 동향 •

》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주거학회에서 잇따라 학술상 수상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가 최근 중앙대에서 개최된 (사)대한건축학회 춘계 정기총회와 한국주거학회에서 잇따라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사)대한건축학회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건축연구, 아파트 리모델링과 활용방안, 그리고 한국형주거단지개발'을 비롯한 저술활동과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분야 기술 발전 및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주거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전통 한옥의 현대 한옥형 집합주택모델 개발'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

과 저술을 통해 주거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목포대 건축학과 김태훈 교수, 공학교육혁신 산학협력 우수 교수로 선정



김태훈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태훈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서 실시한 공학교육혁신 산학협력 우수 교수로 선정되었다. 목포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 및 브랜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 매년 우수교수를 선정하고 표창함으로써 교원의 자기진작 및 산학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서 산학협력 우수교수 포상자는 '가죽회사 확보 및 유지, 가죽회사 애로기술지도,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현장실습, 전문직교육,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등을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하였다.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1. 출품작품
 - 작품내용: 현상설계 당선 또는 준공건축물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

2. 출품자격
 - 출품자격: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3. 작품규격
 - JPEG, PSD 파일로 제출 (규격 A1사이즈 / 594x41mm)

4.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 (월) ~ 8. 30 (목)
 - 접수처: (사)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송호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 작품 CD (JPEG, PSD 파일)

5.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2012. 6. 29 (금)까지
 - Fax: 0621528-0026
 - 신청서: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kira.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2년 광주건축공모전

"행복한 창조도시" 사업이 공존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도모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Community가 강화된 공간 아이디어 디자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 주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의 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Community 시설 디자인
- 참가자격: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
- 신청서류: 1. 신청서 2. 설계도면 3. 포트폴리오
- 일시: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 9월 7일 (금) 오후 6시
- 방법: http://g.kira.kira.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등록 및 접수
- 심사
 - 1차 심사: 2012년 10월 4일 (목) /결과발표 개별통보
 - 2차 심사(공개심사): 2012년 10월 18일 (목) /결과발표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장소 변경 시 추후 통보)
 - 공개심사 참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 신청: 062-521-0025)
 - 입상한선 분야에 기념품 증정
- 시상
 - 대 상(1등):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등):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특 상(5등):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격(10등): 상장 및 기념품
 - 입 상(다수): 상장 및 기념품

문의: (사)광주건축사협회
Tel. 0621521-0025~6, Fax. 0621528-0026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사단법인 광주건축사협회

18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다녀와서 —“흔적에서 서울을 보다 2012”

최보은 건축사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지난 5월 18, 19일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주최하는 제18차 전국여성건축사 대회가 '흔적에서 서울을 보다 2012'라는 주제로 서울 삼청각 일화당에서 열렸다.

고은영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여성건축사회 초대회장 지순 건축사는 '여성건축사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건축 전문인로서의 자질향상'을 주문하였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영자 회장은

은 축사에서 '건축문화 보급에 여성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이날 총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송죽원 김재성 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부대행사로 서울시청사 등을 견학했다. 서울시청사는 기존 르네상스 절충주의 양식의 본관동을 보존, 복원하면서 신관동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신관동은 하이테크한 자연과 전통을 담아 간결하면서도 한국적인 곡선미를 표출하여 고유의 상징성을 창조하였으며 정면 파사드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구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첨단 시청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1995년 말부터 민가를 옮겨 짓기 시작하여 궁집, 사대부집, 갯간채, 부엌채 등 10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한국가구박물관에서는 우리 전통의 목가구 건축의 조형미와 비례미 등을 볼 수 있었고, 때마침 이곳에서 열린 구찌 가방의 전시회는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와 프랑스 디자인의 개성이 거의 흡사하여 한옥과 고가구 그리고 오래된 구찌 가방의 자연스런 조화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사적들과 문화재, 민속자료들로 인해 도심속 거러 박물관이라 불리는 북촌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로 사이에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거거지이다.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North Village)'이라 불리워졌는데 조선시대 상류층 주거지로서 전체적으로 전통한옥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북촌의 한옥 사이 사이로 싹싹처럼 얹혀 있는 골목길과 작은 한옥들이 군집하여 만들어 내는 골목 풍경의 아름다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경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 서울역 건축공간을 복원한 '문화역사 284'는 건축을 내외부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근현대사 및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문화역사관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전시, 문화행사, 세미나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와같이 이번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여성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절로웃처럼 소박한 우리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건축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도시재생사업워크숍 개최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는 지난 6월 7일, 광주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 '창조적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박익수 회장을 비롯하여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영준 교수, 동아인제대학교 남승진 교수, 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광주시 공무원, 학생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의 신청기간, 대상자 산발일자 및 자격 증명서류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의 공고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 신청방법

- 한사람이 여러 가수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가장 빨리 접수한 한번만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생활관 신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경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교육당일 신청)

○ 교육장 선정방법

- 과정보로 정규인원 25명과 대기자 10명 선착순으로 선정

○ 교육신청 기간

- 교육신청 기간: 6. 11(월) 10:00 ~ 6. 17(월) 24:00

○ 교육대상자 후보 명단 발표: 2012. 6. 20(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별 SMS 통보

○ 자격증명자료 제출기간: 6. 23(금) 18:00,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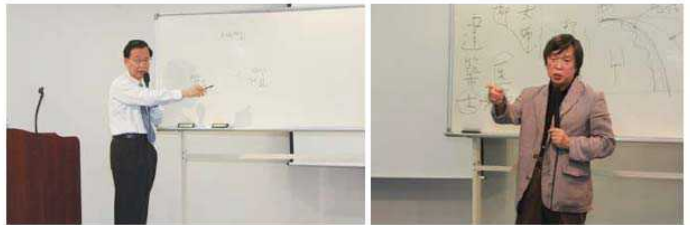
○ 교육신청인원 최종 결정 통보: 2012. 7. 9(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별 SMS 통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광주건축사회가 마련한 '제3기 건축사 Academy' 개강

- 정동채 前 문광부 장관, 류춘수 건축사 강연이어 오는 6월 14일, 28일 진행 예정



광주건축사회에서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3기 건축사 Academy가 지난 5월 17일 제2강과, 5월 31일 제3강차 진행과 함께 공식 개강되었다.

제3기 건축사 Academy의 공식 개강 강자인 제2강자는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의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건축'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자에 건축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교수, 학생, 일반인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정동채 前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회의원 재임 기간 추진한 문화 정책에 대해 청강하였다. 31일 진행된 제3강차에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건축의 류춘수 건축사가 '류춘수 건축의 지역성과 세계성'이란 주제로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 등을 알기 쉽게 명상을 통해 설명하며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건축사회 심성봉 회장은 "이번 광주 건축사 Academy에 정동채 前 장관과 류춘수 건축사와 같은 명망 높은 분들의 강좌가 마련되어 한층 수준 높은 Academy가 된 것 같다"며 "향후 진행될 인하대학교 임종업 교수와 천지회계법인 황용현 회계사의 일한 강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제3기 건축사 Academy는 오는 6월 14일, 제4강차인하대학교 임종업 교수의 '극장 건축의 공간적 특성과 전개과정'과 6월 28일, 제5강차 천지회계법인 황용현 회계사의 '건축사의 세무회계'가 진행된 후 종강될 예정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송전철탑, 예술적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 7월 20일까지, 정원박람회장 송전철탑 재활용 공모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장 내에 있는 송전철탑을 재활용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람회의 랜드마크가 될 예술 조형물로 승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조직위는 정원박람회장 조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공사의 안전성과 경관을 저해하는 송전철탑 5기에 대해 박람회 주제(Garden of the Earth)와 어울리고, 박람회 랜드마크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하였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정원박람회장 내 또 다른 전시언을 요소를 마련하고 송전철탑에 대한 재활용 및 경관 개선에 새로운 내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송전철탑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모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당선자에게는 상징 조형물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권까지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www.2013expo.or.kr) 또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061-749-3523)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전남·전북지역 6월 지역축제 안내

- 05. 19 (토) ~ 08. 19 (월)까지 2012 여수 마칭관악페스티벌 - 전남 여수시 여수구항해안공원
- 05. 19 (토) ~ 10. 28 (일)까지 2012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시티
- 06. 08 (금) ~ 06. 16 (토)까지 제16회 무주 반딧불 축제 - 전북 무주군 반디랜드
- 06. 21 (목) ~ 06. 24 (일)까지 2012 번성포 단오제 및 굿비축제 - 전남 영광군 번성포 송해아름 등
- 06. 22 (금) ~ 06. 24 (일)까지 2012 고창북문자와 수박대축제 - 전북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
- 06. 23 (토) ~ 06. 24 (일)까지 제54회 전주단오제 -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 제10기 교육생 모집 공고

■ 교육종류과정 개요 및 지원자격

교육기간 및 이수시간	교육비	모집인원	기 열 사
2012년 7월 4일 ~ 2012년 9월 5일 총 100시간(이론, 실습, 현장실습)	무료	60명	• 건축 관련 분야의 재직근로자 또는 교육보험료 납부자

※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비 일회성 확보를 위해 교육비제출(50만원)을 일부하여야 하며, 수료식에만 반환.

■ 제출서류(증명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1.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신청서 1부

- 1-1. 최종 학력 증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1-2. 건축 관련 업체에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사실 확인서 1부.
- 1-3. 친환경 건축 관련 교육이수 사실, 건축 관련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1-4. 건강보험자격확인확인서 1부. (접수 15일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학력 변경 전직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학력, 근무경력, 교육,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위 1-1, 1-2, 1-3의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국가인적지체발판소사업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일현황 각 1부

※ 협약서를 체결한 건축사사무소 세직근로자는 생략(협약 체결 유무는 협회 친환경교육팀에 문의)

■ 지원신청서 교부 등

지원신청서 등의 관련서류 다운로드, 서류합격자 발표 등 모집일정 관련사항은 친환경건축설계 아카데미(www.aac.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접수

- 1. 접수기간: 2012년 5월 21일(월) ~ 6월 15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야간 18:00까지)
- 2. 제출방법: (137-877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003-55 건축사회관 3층 친환경건축설계 담당자(2)
- ※ 동기후원(동지회) 또는 저절원을 접수할 수도 있음

3. 문의전화: 02) 3415-6857, 6858

■ 모집일정

- 1. 서류 접수 기 간: 2012년 5월 21일(월) ~ 6월 15일(금)
- 2. 서류합격자 발표일: 2012년 6월 20일(수)
- 3. 면접 전 행 일: 2012년 6월 23일(토)
- 4.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2년 6월 27일(수)
- 5. 제10기교육사작일: 2012년 7월 4일(수)

2012년 5월 21일

친환경 건축설계 아카데미 원장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에 교류협력차 방문

— 상호교환방문 형식으로 올내는 강소성 감찰설계협회가 방문



전라북도건축사회의 국제교류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는 6월 12일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방문단 12명이 교류협력차 전북건축사회에 방문한다.

강소성 감찰설계협회와 상호교환방문 형식으로 추진되는 교류사업은 지난 2009년 국제교류 협약 체결 이후 양 협회 회원들의 우호 증진을 물론 양국의 건축문화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북건축사회는 이번 방문 일정에서 전주시 경기전과 전통성당 및 현대건축물 탐방, 새만금 방조제 및 전망대 관람, 환영만찬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영접에 만발을 기하고 있다. 이성업 회장은 "앞으로 감소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 건축계 동정

*입회

— 장영성 건축사 / 대한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운천로 92번길 9 지상 1층

*전임(전남 → 광주)

— 왕성호 건축사 / 푸른&다에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1층

*변경(소재지 변경)

— 주정호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 광주 남구 대남대로 405(월산동)

*결혼

— 임채열 건축사 / 나성 건축사사무소
/ 5월 26일 (토) / 장례 결혼

*부고

— 나승문 건축사 / ㈜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5월 17일 (목) / 모친 별세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조경환 건축사 / 여행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문수동 805-15

— 고근식 건축사 / 예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합읍 남악리 2053 (조선타워 6층)

— 김정철 건축사 / AD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98-1 (세종법조B/D 301호)

— 오태운 건축사 / 탑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상동 903-3 (세원B/D 5층)

— 문명석 건축사 / 상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222-9 (종원 APT 2동 201호)

— 송승용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우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9

*변경(소재지 변경)

— 노경운 건축사 / (주)도마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5

— 김광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2
/ 전남 여수시 시청서 1길 6-3

— 정민선 건축사 / 계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합읍 대죽동로 15번길 30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최 호 건축사 / 회우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사정동 421-5

*변경(소재지 변경)

— 오향근 건축사 / 우림 건축사사무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7-2

— 조창호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3-2

— 박보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CNS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3-3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3

— 노관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상삼
/ 전북 군산시 지곡동 510

— 정희진 건축사 / 힘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남동동 72-13

*변경(상호 변경)

— 김중왕 건축사 / 녹 건축사사무소
/ 담 건축사사무소

*부고

— 김병호 건축사 / 동원 건축사사무소
(前 도시건축)
/ 5월 30일 (수) / 회원 별세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6월 4일 (수) / 장모상

— 박승룡 건축사 / 도원 건축사사무소
/ 6월 7일 (목) / 부친상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 26일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21호 2012-06-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실무수련의 기간 및 실무수련의 기준과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및 실무수련 기간 등(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준한 건축학 학위과정(이)이 개설된 대학원에 건축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한 경우는 2학기 건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한 경우는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고,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마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련 기간을 4년으로 하며,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규정함.

나.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절차(안 제20조)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건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간 추가(안 제25조제22호 신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라. 건축사의 실무교육(안 제30조)

등록한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건축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2명, 건축사 2명 또는 대학에서 건축과 관련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 2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징계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

바.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5조)

건축사의 상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실무수련의 확인,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함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70호 2012-06-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의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및 실무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실무수련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수수료 신설(안 제10조)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은 10만원,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은 20만원, 건축사 갱신 등록증 발급은 10만원으로 각각 수수료를 정함.

다. 실무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안 제26조)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신설)

실무수련 신고서,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및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건축사 윤리선언서 등 건축사 실무수련 및 건축사 자격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유문근, 이성업
편집인: 서재형
전담 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영희, 장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열, 박상우, 천영호,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행물: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심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건축사자격등록원 제도 시행

건축사 자격제도 변경에 따라
시행되는 건축사등록원 제도가
건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기대가 되기를 바란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강석훈 | 건축사사무소 선명 1,959,500만 원
문형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0,000만 원
대한건축사협회 1,500,000만 원
전라북도건축사회 500,000만 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판필/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 김주건축사회(Tel : 062-521-0025)
E-mail : gjk@emi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주소, 연락처, 직책 및 역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지하철에서 느끼는 삶과 인생

노한나 / 과정
미디어엔지 건축사사무소

난 아침마다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지하철의 크기만큼 버스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그래서인지 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많은 삶의 군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지하철 속에 그들의 모습이 힘들어 보여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정겹고 반가워서 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머물기도 한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두 사람으로 인해 삶과 인생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던 적이 있었다.

몇 해 전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
내가 탄 역의 몇 정거장 뒤에 50대 아저씨 두 분이 타셨는데 갑자기 내 앞에 앉아 계시던 60대 아주머니가 방금 지하철을 타셨던 아저씨 한분에게 다가서는 거였다.

너무나 얼굴을 가깝게 접촉하시려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내가 괜히 민망스러웠다. 지하철에서 그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으니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

계속 관찰하며 슬며시 보게 되었다.

그분들도 서로 이사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인 듯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세월에 대한 안부인사와 함께 이러저런 이야기를 꺼내셨다.

계속 관찰하고 신경이 쓰였기에 그 두 분의 관계가 무척이나 궁금했다. 알고보니 그 아저씨는 아주머니 남동생의 친구였고, 이야기 중에 아주머니 남동생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고 갔다. 그 대화 속에서 아주머니는 남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친구가 죽었는데도 몰랐네. 허허'라고 대답한 후, 다른 안부 인사를 전하며 그 두 분은 헤어져 서로의 갈 길을 향해 지하철에서 내리시는 것이다.

그 아저씨의 슬프지 않은 듯한 묵직한 대답에 난 머리를 팡 맞은 듯 했다. 참 소박하게 웃으시는 그 아저씨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해탈이 담겨져 있어 보였다.

내가 본 그분의 모습은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에 이르러 진정한 자기 삶의 인생을 통달한 군자의 모습이 되고 있던 생각이 들었다.

삶과 죽음, 이 모든 현상들이 덩덤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며 스스로에게 포용할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앙코르 왓1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시공을 넘어 천년의 문으로 들어 선다
높디 높은 보리수 그늘 선
한 제국이 잠시 머물러 있다.
향하수 찰나, 가랑잎 하나로
넌 지배한다.
유허된 유배지
섬세한 문양은
바로 이제 인양 천년 되어 하강한
여인이 되 있는 거
급방이라도 타질 것 같은 유방을
심오라기 걸릴 것 없어
바라보기 너무 눈부시다.
무의
벽화에서 빠져 나왔나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유혹을 구하는 거다
누 천년이 사라졌다
지금 눈앞 파노라마로 펼쳐 있는 거다
원미가 될 수 있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될 수 있을
지금 책과는 소년일 수 있는
무의
돌보다 단단한 나무되어
코브라의 화신 인양
유적을 안고 있다
물가에 피어나는 화사한
수련
하늘 기운 담은
플래쉬 호수의 범람
그 물세 한 마리
지금 이곳에 미라되어 숨다

한세상 꿈일...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저자 조원용 / 출판사 창 의 제원

남자영 / 학생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많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서 가는 중에 멋진 건축물이 있으면 '우와 하고 작은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이렇듯 좋은 건축을 보면 눈이 즐겁고 '내가 배우고 있는 건축이 멋진 예술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은 미술작가처럼, 음악가처럼 원하고 싶은 곡이나 작품 만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건축은 의뢰인 즉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즉 건축은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한 역사의 문화적인 역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작가는 건축사이자 생활인으로서 건축에 대한 생각을 쉽게 표현하고 평소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건축을 이해하고 교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알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라는 책을 통해 평소 우리 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건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봉백화점 붕괴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필자의 실제 경험을 포함하여 위험상황에서 건축이 생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어린이 등 일반 어를과는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세계적인 건

축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옥에 대해 그 우수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축이라는 분야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건축을 떠나 있기가 어려울 정도의 친밀함 속에서 막상 건축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전문 분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건축물이 크거나 작거나 누구라도 자신의 공간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비어있는 건축이라는 공간에 다양한 행복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알게 되었다.

필자가 말하는 삶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진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보길도의 바다

회원들과의 보길도 나들이는 참 아름다웠다.
배위에서의 소주 한잔은 관주에서의 모든 것들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 시간이 그립다.

51cmx44cm 유채

최은영 건축사작 / 건축사사무소 시명(時鳴)



가정의 달 5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한 것이다. 이제 초등학교를 막 입학한 어린 꼬마녀석들을 보며서 나의 어린시절이 문득 생각난다.
죽으라고 뛰었던 달리기, 선생님이 친구의 손등에 찍어주었던 등수를 보며 못내 친구가 부러웠던 그 시절이 언제 그리워진다.

촬영자: 박승호 건축사(朴承浩)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아산체육관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엑스페이스 온칩영 건축사(주)순천퍼스트병원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주요색상표 : 아래 색상표 외 다양한 색상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LW PANEL 규격 : 1300×3050×6T

시공 사례 사진



도립도서관(울진)

바노비기 역삼동성형외과



인천어린이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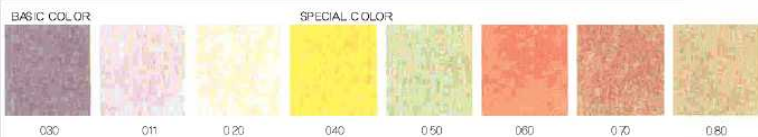
명스여성병원

주력제품 : FBD PANEL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주요색상표 : 아래 색상표 외 다양한 색상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FBD PANEL 규격 : 1200×2400×8T

시공 사례 사진



지평동 국민건강보험

의곡사레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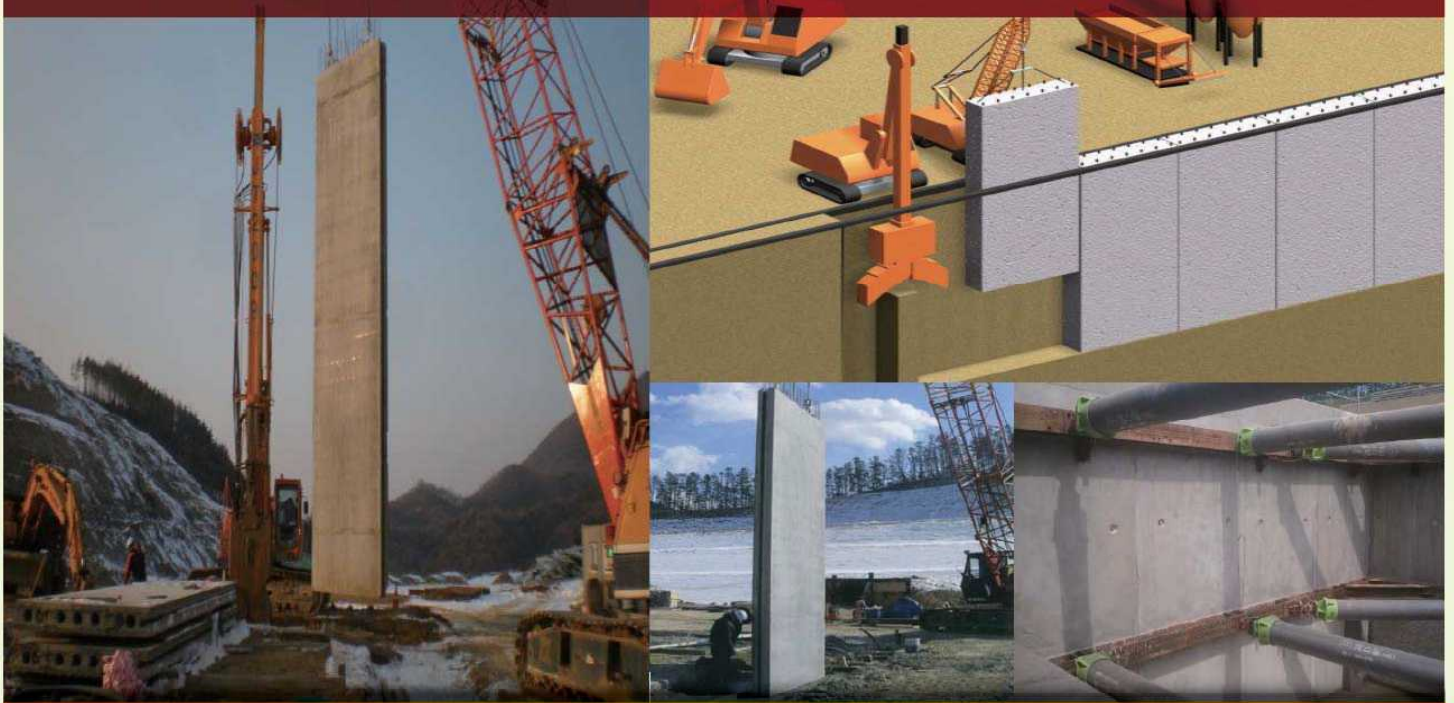


항상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062-361-6243, 061-382-0681
Fax.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 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번지 반석빌딩 2층

T. 031) 577-1673 F. 031) 577-1674

광주지사. 김 유 성 이사 010. 5007. 8437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